동양 문자를 회화 언어로 파리의 두 작가 제주 만남

김창열미술관·이응노미술관 '이응노·김창열' 공동 기획전
파리 시기 중심 작품 비교 전시

'파리의 한국인 작가'였던 이응노(1904~1989)와 김창열(1929~2021).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양의 문자와 서예 전통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발전시킨 여정을 살필 수 있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과 대전 이응노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이응노·김창열' 특별전을 통해서다.

1958년 프랑스 파리에 정착한 이응노는 문자를 해체하고 재구성해 '문자 추상'이라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했다. 김창열의 파리 정착 시기는 그보다 늦은 1969년. 김창열은 신문지에서 발견한 문자에 대한 관심을 천자문으로 넓혀 물방울 회화의 맥락에 끌어들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시기를 중심으로 이응노와 김창열의 주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김창열미술관에서는 '회귀'(1992), '물방울'(1987) 등을 내놓고 이응노미술관에서는 '주역 64괘 차서도'(1974), '군상'(1986), '밤나무'(2009, 1972년 원작) 등을 꺼냈다.

'주역 64괘 차서도'는 이응노가 1967년 동백림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파리로 돌아가 창작 활동의 전기를 마련하며 제작한 연작이다. '군상'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응노가 집중적으로 다룬 소재다. 1980년대 들어선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군중들이 등장하는데, 파리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촉발한 것으로 본다. '밤나무'는 태피스트리 작업으로 완성한 구성적 문자추상 작품이다.



이응노의 '군상'(1986). 이응노미술관 제공

이 전시는 지난해 11월 작가 미술관인 김창열·이응노미술관이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6~9월 대전에 이은 전시다.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개막식은 이달 13일 오후 3시30분. 미술관 누리집 참고. 한편 이응노는 앞서 개막한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의 '서귀소옹과 20세기 서화 거장'전과 함께 제주 지역 공립 미술관에서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잇따르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학 전문 인력 배치·별도 운영팀 설치를"

제주문학관 5주년 세미나
자문 명예관장·부실 운영위 야간 개방·창작실 개선 요구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도 주문

2021년 10월 23일 문을 연 제주도립 제주문학관. 지난 7일 오후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문학관 개관 5주년 기념 문학세미나에서는 제주 유일 공립 문학관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은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문학 전공 전문 인력(학예사)의 부재, 문학관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가동, 도민문학학교 예산 축소, 본래 취지를 벗어난 창작실 가동,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의지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날 '지역문학의 발전과 제주문학관 5년'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윤 제주대 교수는 자문 역할 명예관장 대신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개방형 공모제 형식의 문학 전문가 관장 채용, 학예 연구를 총괄하는 문학 연구 인력의 팀장 배치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문학 연구의 거점을 분담하고 기획전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제주문학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이 필수적이다. 당장에 정규직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는 실질적 권한을 지니는 관장을 두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형 육필문학관·제주 관장은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문학관들은 공사립과 무관하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제주문학관 개관 초기에 운영했던 문학 난장 등 정기적 프로그램이 최근 사라져 버린 점 등을 꼬집었다.

강봉수 제주작가회의 회장은 제주문학관을 두고 "하드커버 마을지를 덮어 둔 것 같다"고 했다. 건물은 잘 지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강 회장은 야간 개방 확대, 창작실이 시험공부용 독서실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가식 자료실 등 용도 정립, 개관 이후 5년간 단 10회 개최에 그친 운영위원회 내실화, 민관 협치 사례인 도민문학학교의 지속 가능 운영 체계 확립 등을 주문했다.

김석범 제주문학관 운영위원은 최근 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을 토대로 "예산 편성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을 논의하는 등 문학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토론에서는 제주도 문화정책과 내 제주문학관 운영팀 분리 설치, 2016년 제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기초 조사 연구 용역 이후 달라진 환경을 담은 제주문학관 중장기 운영 방안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좌장을 맡은 김수열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세미나 말미에 "명예관장은 자문 역할이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했다면 그동안 누가 문학관을 움직인 거냐"며 "오늘 세미나가 문학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할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제주 트리오 디오가 전하는 '읽히는 음악, 들리는 이야기'

소설 속 장면들이 실내악 선율로 살아난다. 송희라(피아노), 김시온(바이올린), 박소현(첼로)이 참여한 '트리오 디오'가 펼치는 기획 공연 '읽히는 음악, 들리는 이야기'다. 이달 14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

트리오 디오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르 예술가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빛깔의 클래식 무대를 시도해 왔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공공공연장 연계 창제작 지원 사업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에서는 제주 문학인과 협업했다. 제주 출신 소설가 지혜의 단편소설 '북명 너머에서'를 원작으로 음악과 문학의 만남을 준비했다.

트리오 디오는 이 공연을 위해 소설 속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해 친숙한 음악으로 들려준다. 어니언스의 '편지'에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제2번' 2악장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문학 작품과 어우러진다.

관람료 무료. 사전 예약은 포스터 내 QR 코드 이용. 진선희기자

영화觀 라 볼라 네그라

사랑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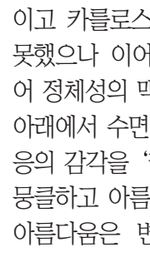
누군가에게 해야 할 삼키지 못한 말들을 글로 쓸 때 생각한다. 글이 된 이 마음들은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보내는 이의 마음이 받는 이에게 온전히 닿는다면 가능할까. 그때가 되면 글로 남긴 마음들은 혹 주술적인 힘을 빌려 생명력을 얻게 될까.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가장 진실한 순간의 기록은 몸과 마음을, 말이 되지 못한 것들과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영구히 보관한다. 병 속에 담긴 편지의 기적들이 자연의 힘을 빌려 세월을 거슬러 마침내 수신인을 찾아낼 때 역사는 더 많은 페이지를 얻게 된다.

하비에르 칼보와 하비에르 엠브로시 감독이 공동 연출한 스페인 영화 '라 볼라 네그라'가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내 관객에 첫선을 보인데 이어 16회를 맞은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1932년과 1937년 그리고 2017년이라는 세 시대를 배경으로 각각 카를로스, 세바스티안, 알베르토라는 세 명의 퀴어 남성이 겪는 이야기를 그려낸 '라 볼라 네그라'는 대서사시라는 말에 더없이 걸맞는 작품이다. 스페인의 시인이자 희곡작가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미완성 희곡인 '라 볼라 네그라'에서 영감을 받아 영화적 상상력을 아낌없이 펼쳐낸 작품은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나들며 관객들을 시대와 이야기 안으로 초대한다. 문학에 기반을 둔 역사 영화, 스페인 내전의 이면을 응시하는 전쟁 영화, 세대를 걸쳐 완성되는 퀴어 멜로, 몽환적인 동시에 선언적이기도 한 뮤지컬이라는 각기 다른 장르를 2시간30분이라는 러닝 타임 안에 정교하고 섬세하지만 대담하게 수놓았다. 영화적 야심과 작가의 진심을 동시에 탑재한 채 목적지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라 볼라 네그라'.

목적은 분명하다. 발신인이 남긴 글을 수신인의 마음에 닿게 하겠다는 것, 2017년의 퀴어 남성인 알베르토가 세바스타안과 카를로스 그리고 라파엘이 마음으로 토해낸 편지를 받는 이가 된다. 알베르토에게 세바스티안은 이어져 있지만 알지 못했던 이고 카를로스와 라파엘은 알지 못했으나 이어져 있는 이다. 퀴어 정체성의 맥박이 세월의 지층 아래에서 수면 위로 솟구치는 조응의 감각을 '라 볼라 네그라'는 뭉클하고 아름답게 그려낸다. 이 아름다움은 변색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필체의 온전한 전달로써 가능한 감각이다. 마침내 알베르토의 손에 닿은 그때의 마음들이 스크린 위에 다시 살아날 때 영화를 마주한 관객들 또한 이 사랑의 역사의 수신인이 된다. 받은 이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누군가를 찾아 전하는 일이다. '라 볼라 네그라'는 '검은 공'이라는 뜻으로 차별과 거절의 모양을 뜻한다. 영화의 후반부 흰 눈으로 덮인 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사랑이 깨어나는 순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낸 곳에서는 어떤 이의 사랑도 영원히 잠들지 않음을 보았다. 나 또한 역사의 목격자이자 전달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한 성 율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

수 축 상
CONGRATULATIONS

2026 혁신리더 인물대상

2026 혁신리더 인물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읍면동 분회장

대정읍 분회장 우명창
남원읍 분회장 김문화
성산읍 분회장 정도유
안덕면 분회장 김유헌
표선면 분회장 김선부
영천동 분회장 김응봉
동홍동 분회장 김성도
대륜동 분회장 김동선
대천동 분회장 김정득
중문동 분회장 김상언
예래동 분회장 김명윤